

# BIO ECONOMY BRIEF

March 2017. Issue 6

## 제네릭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인식 변화

# 제네릭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인식 변화

홍정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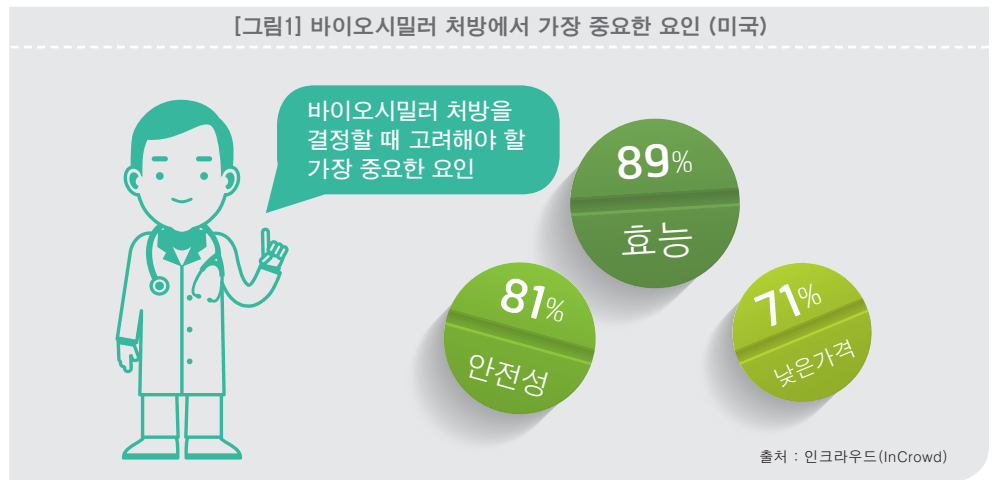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8개의 블록버스터 급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기 예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sup>1)</sup>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8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경쟁 중에는 한국의 제약사가 7개 제품에서 퍼스트 무버 경쟁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수시장 산업 위주였던 국내 제약사들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sup>2)</sup> 제네릭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진이 제네릭 의약품을 어느 정도 처방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제네릭 시장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변화를 북미시장의 상황을 예로 들며 살펴보고자 한다.

## 바이오시밀러 처방의 증가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관련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인크라우드(InCrowd)에 따르면, 미국 의사들 중 84%가 앞으로 3년 안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처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초반 동 조사에서 70%라고 응답했던 것에 비하여, 14%나 증가하였다.<sup>3)</sup>

의료진이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3가지를 효능(89%), 안전성(81%), 낮은 가격(71%) 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1]).

[그림1] 바이오시밀러 처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미국)



## < 낮은 약가의 중요성 >

의약품의 가격은 앞서 말한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 3가지 중 가시적으로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설문조사<sup>4)</sup>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약가가 15% 낮으면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겠다고 한 의료진이 59%이며, 25% 저렴하다면 의료진의 77%가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겠다고 답하였다. 반면, 의료진 중 35%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오리지널 바이오

1)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으로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과 달리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동일하다'기 보다는 '유사하다'는 의미로 시밀러(Similar)라는 표현을 사용함.

2) 8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 휴미라, 엔브젤, 레미케이드, 아바스틴, 허셉틴, 란투스, 리톡산, 뉴라스타 (출처 : 삼전KPMG 경제연구원,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기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2016)

3) 피부과, 내분비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및 류머티스내과 등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중요한 전공과목 분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9월 설문조사를 진행함.

4) 인크라우드(InCrowd)에서 2016년 9월 진행한 설문조사

의약품을 가장 먼저 처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먼저 처방하겠다고 한 의료진은, '바이오시밀러의 동등성(compatibility)'이 완벽하게 입증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의료진은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아직은 부족하다며 타 병원에서의 처방 결과를 모니터링 해 본 후 처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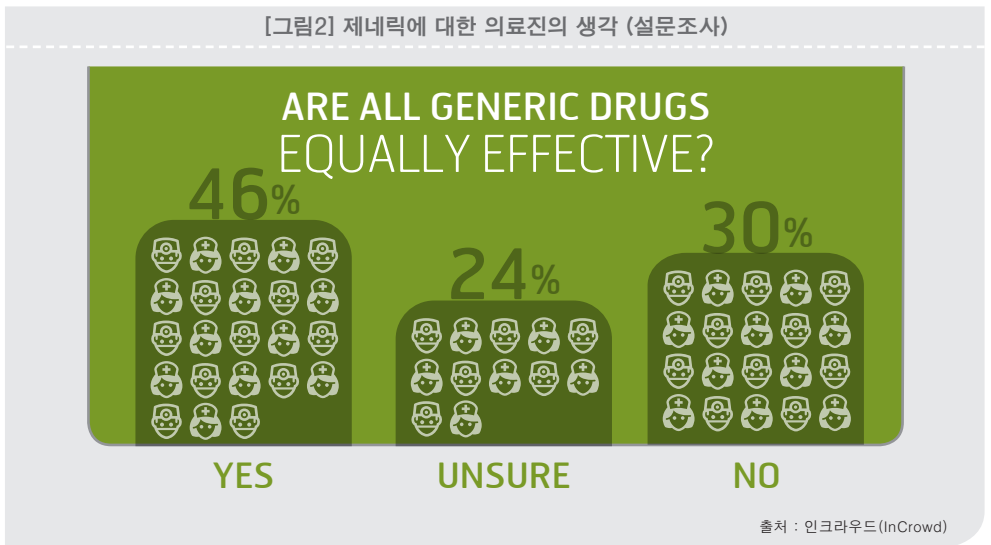
### < 의사의 행동이 환자의 순응도에 영향을 끼침 >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매 년, 환자들이 처방전대로 약을 타서 먹지 않는 것이 125,000명 이상의 환자를 죽음으로 이끌며, 막을 수 있는 의료비 등 약 3000억 달러의 비용을 낭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과 관련지어, 인크라우드(InCrowd)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환자의 순응도<sup>5)</sup>와,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의료진들의 태도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설문조사<sup>6)</sup>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약을 처방하는데 있어서, 약의 가격이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말하였으며, 일반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이 저렴한 복제 의약품(제네릭)의 효과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견 또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료진의 46%는 제네릭 의약품이 동등하게 효과적이라고 답하였으며, 30%는 동등하게 효과적이지 않다, 24%는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였을 때 동등하게 효과적이지는 확실하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즉, 제네릭을 처방하겠다고 한 의료진의 수도 상당하였지만, 저가의 제네릭에 대하여 신뢰감이 부족한 의료진들도 존재한다는 결과였다([그림2]).

[그림2] 제네릭에 대한 의료진의 생각 (설문조사)



5) 순응도 (Compliance) : 환자의 복약 순응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정확하게 복용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의 충고나 지시를 따르는 정도를 말함.  
6) 인크라우드(InCrowd)에서 2016년 12월 270여명의 평균 15년 이상 전문적인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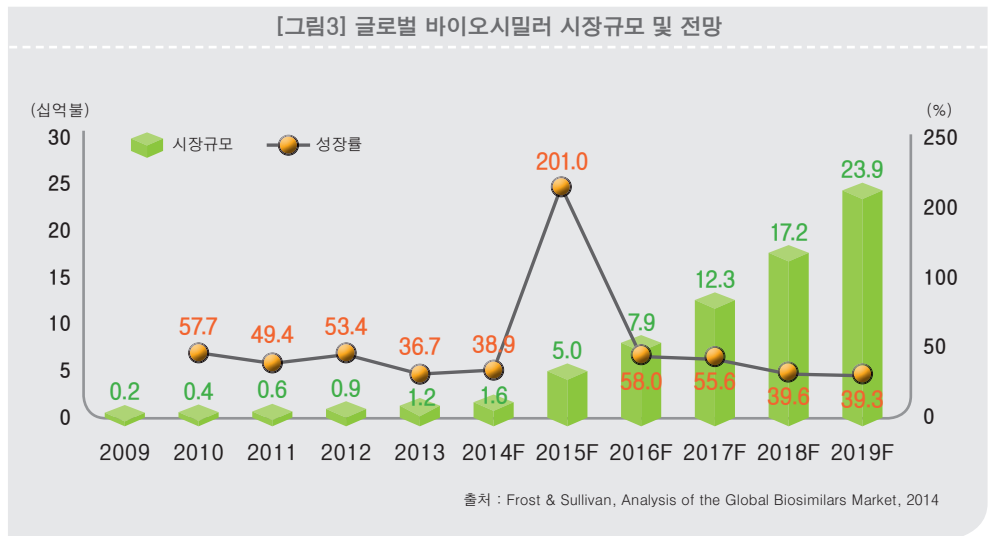
### < 약가와 환자들의 순응도 관계 >

환자의 처방전에 대한 순응도 조사에서는 ‘저가의 약이 순응도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조사되었다. 몇몇 의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고가의 약을 처방하였을 때 환자들의 순응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32년 의료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 소아과 의사는 환자가 과거에 처방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 진료에서는 전보다 더 비싼 약을 처방하기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있어 의사가 내려준 치료 계획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낮은 가격의 약 처방이 중요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환자들이 저가의 약값은 치료 효능을 못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Frost & Sullivan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013년 12억 달러에서 2019년 239억 달러 규모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며, 국가별 점유율은 유럽이 4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 13.2%, 미국 12.3%, 한국 8.0%, 인도 6.7%, 일본 3.0% 등 순으로 나타났다<sup>7)</sup> ([그림3]).



세계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시장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다뤘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의료진의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진의 인식 및 태도는 바이오헬스산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막대하다.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대한 임상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제네릭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 변화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단발성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7)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s) 시장 동향 분석>, 2015. 10. 5

March 2017. Issue 6

저자소개

홍정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전화 : 031-628-0027

e-mail : hjebio@koreabio.org

BIO ECONOMY BRIEF

발행 | 2017년 3월

발행인 | 유승준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http://www.koreabio.or.kr)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KOREA BIO-ECONOMY RESEARCH CENTER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08  
ISSN 2508-6812